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황보경옥*

목 차	
I. 서 론	IV. 연구 결과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V. 논의 및 결론
III. 연구 방법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중 9차 연도에 해당하는 2019년(고등학교 3학년) 총 1,146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SPSS 27.0과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우울은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우울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우울이 사회적 위축을 거쳐 학교생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우울과 사회적

* 대구대학교 성산교양대학 강사, insyung123@naver.com

위축을 감소하는 방안과, 다양한 개입 전략, 심리적 안정화를 위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다문화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 우울, 사회적 위축, 매개효과

I. 서 론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다른 인종과 민족이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다문화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인 지원체제와 복지제도의 향상, 서비스 및 사회적으로 개입해야 할 요소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욕구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변화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다문화 학생의 수는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으며, 학령인구의 감소에 비하여 다문화 청소년은 매년 1만 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교육부, 2020). 양적 규모의 증가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청소년 자녀 비중도 증가하여, 중·고등학교 학령기인 12~17세 청소년이 2009년 6%에서 2018년에는 40.5%로 증가하였다.

다문화 가족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족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심리적인 문제가 논의되었고, 특히 우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김순규, 2011).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한국 사회 전체 청소년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 청소년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며, 이로 인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문화가정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모선희·이인희, 2008).

부정적 인식을 경험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이중문화라는 상이한 가치관과 생활 태도를 지닌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는데 이는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Ozdemir & Stattin, 2014).

하지만 관련 선행연구가 대부분 학교생활 부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청소년기 심리적 발달에 관련된 연구는 비 다문화 청소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김순규, 2011), 집단 내·외의 차별을 경험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전체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우울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omero & Roberts, 2003). 우울의 경우 중고등학교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광현, 2020).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중요 요인으로 가족기능과 자아정체성, 문화 적응 스트레스로 나타났으며(박윤경·이소연, 2009), 개인 심리적 요인으로는 정체성, 적응 유연성, 자아 탄력성, 스트레스 강도, 우울감(양계민·황진구·인보라·정윤미·김주영, 2018; 조은정, 2008), 그리고 이중 문화 환경, 심리 사회적응, 문화 적응(김성결, 2013; 김순규, 2011, 여성가족부, 2022), 부모의 방임(홍나미·박현정, 2017) 등 일상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충래·홍진주, 2006). 다문화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이나 학업 스트레스 외에도 두 가지 이상의 문화권에 걸쳐 성장하고 생활하는 측면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김아영·김수인, 2011; 안선정·이현철·임지영, 2013).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나 지역사회 내의 문화적 편견과 차별에 경험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껴 집단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게 되어 내적 보호 요인을 경감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모상현, 2018; 이봉주·민원홍·김정은, 2014). 이들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 탈락하지 않고 제도권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으며, 안정된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장혜림·이래혁, 2021).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교생활 부적응은 사회적 차별

이나 편견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으로 불안이나 위축,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의 가능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Nebbitt, and Lombe, 2008). 즉 다문화 청소년들의 우울은 심리 정서적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발병될 수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중문화를 가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전체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우울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omero & Roberts, 2003). 특히 한국문화를 수용하는 태도와 외국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낮은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자현·심재환·전하만, 2022; 오낙운·이소연, 2021; 이영주·박윤경·이수경, 2017; 장은실, 2021; 장혜림, 외, 2021; 조운영·정현희, 2021). 그동안 수행된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성별, 거주지, 중도 입국 여부, 가족 관계, 한국어 능력, 학교폭력 경험, 차별 경험(오승환, 2016)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우울은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특성과의 상호작용 영향을 받으므로 개인,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수준의 사회 환경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이보혜,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이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위축에 주목하고자 했다. 사회적 위축은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으로(Katz, Conway, Hammen, Brennan, and Najamn, 2011), 사회적으로 위축된 다문화 청소년은 친구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홍나미 외, 2017). 자신이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고민으로 인해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타인에게 드러날까 두려움을 갖게 되는 위축이 내재화된다면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들을 차단하고, 스스로 고립하게 할 수 있다(모상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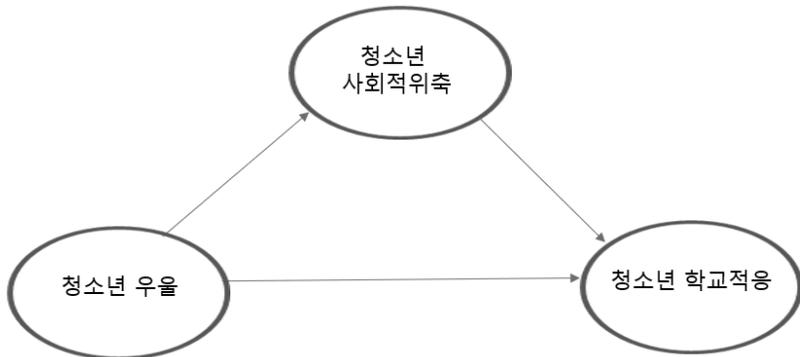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 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이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김동순·박봉선·이익빈·손가현, 2020). 비슷한 맥락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이 사회적 위축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을 매

개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 학교생활 적응, 사회적 위축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다문화 청소년이 늘어가는 데 비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하다. 다문화 초기에는 부모와의 관계, 이중문화, 문화적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에는 우울함이나 불안, 위축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 요인 간의 상호작용에 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만 어떤 메커니즘으로 매개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생활 적응, 사회적 위축의 관계를 알아보고,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과 학교생활 적응 사이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1.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 문제 2.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우울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매개 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학교생활 적응

적응은 개인이 환경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킬 때 일어날 수 있으며, 형태적·생리학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Hartmann, 1964),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로 개인이 환경과의 적합성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Germain & Knight, 2021). 학교는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청소년의 인성과 성장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소다.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는 발달 과업의 장으로 볼 때 학교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는지의 성취 여부는 이후의 사회적응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은선경, 2010). 2017년 기준 학업 중단율을 살펴보면 중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전체 0.66%, 다문화 학생 1.47%이며, 고등학생은 전체 1.47%, 다문화 고등학생은 2.11%로 나타났다(교육부, 2019). 모든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비 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학업 중단율이 높다는 것은 다문화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이다. 다문화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성인기의 삶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과정으로 직업적,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나 지역사회 내의 문화적 편견과 차별에 경험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껴 집단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게 되어 내적 보호 요인을 경감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모상현, 2018; 이봉주·민원홍·김정은, 2014). 청소년기의 학교생활 부적응은 이후 성인기의 직업적 경제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학업 중단율이 높은 다문화 고등학생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교생활 적응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청소년기에 적절한 개입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우울

우울(Depression)은 침울한 기분이나 의욕 저하가 주된 느낌으로, 인지, 정서, 신체적 증상 등 다양한 기능의 저하를 일상에서 나타내는 증상이다(APA, 2013).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Beck, 1995), 주변 사람들이나 또래 부모와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감정에 대한 조절이 어려워 거부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Berkowitz, 1989). 우울증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 우울 증상이 최초로 나타난 시기가 청소년기였음이 보고되었으며(Bardone, Moffitt, Caspi, Dickson, and Silva, 1996), 심리적 부적응 중 우울은 가장 발생 빈도가 높다(Gutman, and Sameroff, 2004; 천지은, 박지선, 2021). 따라서 청소년기에 우울을 경험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심리·정서적 장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중문화를 가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비 다문화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우울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omero & Roberts, 2003).

김송미(2023)의 다문화 청소년 연구에서는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이중문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낮은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은실, 2021; 조윤영 외, 2021). 우울은 다문화 청소년의 가출, 비행 등의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홍성초·조제성, 2020), 우울이 심해질 경우 자살 생각 혹은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김민경, 2016). 다문화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가는 시점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증재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3.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사회성 기술이 부족한 상태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회피

하고, 스스로 고립되기를 원하는 즉 사회성이 결핍된 상태를 말한다(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사회적으로 위축된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발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술 발달과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원치 않는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면 타인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피하며, 고립되는 위축된 행동을 하게 된다(Rubin, Burgess, Kennedy, Stewart, 2003).

두려움이나 고립감과 불안 등으로 타인과 만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교육 관여가 높을수록, 친구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사회적 위축이 낮다고 보고했으며(이봉주 외, 2014), 부모의 방임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나미 외, 2017).

또 다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종단연구에서는 부모의 높은 방임적 양육 태도가 사회적 위축을 높이며 친구 지지가 부정적 영향을 완화 시키기도 하며(정주미·이동영,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지역사회 인식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희·박소연, 2020). 이처럼 사회적 위축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이래혁·장혜림, 2020). 사회적 위축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최근에 발표되어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축을 분석하고 부정적인 정서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방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사회적 위축,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련성

이중문화를 가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며, 우울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전체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Romero & Roberts, 2003). 우울은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다양한 수준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우울하게 되면 부정적인 시선이 두려워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 외면하는 위축된 경향성을 더 많이 보일 수 있다(연은모·최효식, 2020). 사회적으로 위축된 다문화 청소년은 친구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홍나미 외, 2017). 우울하게 되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며, 문화나 외모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모상현, 2018). 그동안 수행된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성별, 거주지, 중도 입국 여부, 가족 관계, 한국어 능력, 학교폭력 경험, 차별 경험(오승환, 2016) 등이 영향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사회적 위축은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으로(Katz, Conway, Hammen, Brennan, and Najamn, 2011)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비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 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이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김동순 외, 2020). 비슷한 맥락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이 사회적 위축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을 매개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위축은 매개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 학교생활 적응, 사회적 위축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다문화 청

소년 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문화 패널조사는 2011년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다문화 가족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2019년까지 9년에 걸쳐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9차 연도에 해당하는 2019년(고등학교 3학년) 총 1,146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 청소년의 성별은 여자 584명(51.0%), 남자 562명(49.0%)이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17.97세(SD = .13)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의 거주 지역은 경인 지역이 가장 많았고(25.5%), 경산권(23.4%), 전라, 제주권(21.7%)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한국인인 경우는 92.6%이며, 외국 출신인 경우는 2.1%로 나타났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경우가 3.1%이며, 외국 출신인 경우가 91, 8%(일본 34.9%, 필리핀 26.1%, 조선족 포함 중국 17.4% 등)로 나타나서, 부모 중 어머니가 외국 출신인 경우가 월등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의 나이는 50대가 가장 많아서 아버지의 70.1%, 어머니의 51.5%가 50대로 나타났고, 부모의 교육 수준은 고졸 이상이 가장 많아서 아버지는 49.7%, 어머니는 47.1%가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1,146)

구분		단위 : 명, 비율(%)			
거주 지역	서울	110		9.6	
	경인	292		25.5	
	충청, 강원권	227		19.8	
	경상권	268		23.4	
	전라, 제주권	249		21.7	
출신 국가		아버지		어머니	
	한국	1,06	92.6	36	3.1
	중국(한족, 기타)	1	0.1	81	7.1

구분				단위 : 명, 비율(%)	
	중국(조선족)	1	0.1	199	17.4
	베트남	1	0.1	24	2.1
	필리핀	4	0.3	299	26.1
	일본	16	1.4	400	34.9
	태국	1	0.1	48	4.2
	기타/결측	61	5.3	59	5.1
	부모 나이			아버지	어머니
29~39세		1	0.1	25	2.2
40~49세		162	14.1	517	45.1
50~59세		803	70.1	590	51.5
60세 이상		132	11.5	12	1.1
무응답/ 결측		48	4.2	2	0.1
부모 교육 수준			아버지	어머니	
	중졸 이하	346	30.2	125	10.9
	고졸	569	49.7	540	47.1
	대학(2~3년제)	66	5.8	294	25.7
	대학교(4년제)	107	9.3	180	15.7
	대학원 졸업 시스템	10 48	0.9 4.2	5 2	0.4 0.2

2. 측정 도구

1) 우울

우울감은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의 우울척도를 발췌 및 수정 보완한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2011)의 척도를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하다고 생각한다, 걱정이 많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울기를 잘한다,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외롭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다, 모든 일이 힘들다.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은 '매우 그렇다'를 반영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19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 김경연(1998)이 개발한 척도를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나는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어색하다, 나는 부끄럼을 많이 탄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나는 수줍어한다,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은 '매우 그렇다'를 반영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09로 나타났다.

3)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 적응은 민병수(1991)가 제작한 것을 수정 보완한 김지경(2010)의 척도를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민병수(1991)의 학교적응 척도 하위요인은 학교 규칙,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 관계 등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에서는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 관계 등의 3개 요인만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규칙 요인을 포함하기 위해 이자영 외(2010)의 학업 중단 위험 요인 중 교사 및 규율에 대한 갈등 요인에 해당하는 2문항을 역 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선생님이 내주신 어려운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나는 학교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 할 선생님이 있다' 등의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은 ‘매우 그렇다’를 반영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규칙, 학습활동,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에 적응을 잘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03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27.0 프로그램과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조사 도구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변인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셋째, 전체 변인 간의 구조 및 경로를 확인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잠재 변인의 측정 변인이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구조모형을 검증하여 연구 변인 별 경로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적합도 지수에는 절대 적합도 지수(χ^2 , GFI, AGFI, RMSEA, RMR)와 증분 적합도 지수(CFI, NFI, TLI) 그리고 간접 적합도 지수(PCFI, PNFI, PGFI, AIC)가 있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이 자료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인 절대 적합도 지수로 χ^2 (df, p),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orroximation)을 이용하였고, 연구모형이 null 모형에 비해 얼마나 적합도가 높은가를 평가하는 지수인 증분 적합도 지수는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의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TLI와

CFI와 GFI값은 .90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간주하며, RMSEA는 .08 이하 일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홍세희, 2012). 간접 효과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법을 사용했다. 모든 통계적 검정의 유의수준은 5%로 설정했다.

IV.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연구 문제와 연구모형 분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 앞서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 청소년 우울은 사회적 위축과 정적 상관($r=.514, p<.01$)이 나타났고,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과는 부적 상관($r=-.36, p<.01$)을 나타내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이 우울감을 많이 지각할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으며,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은 부적 상관($r=-.297, p<.01$)이 나타나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도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든 변인의 상관계수가 낮아서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는 $-.347\sim.433$, 첨도는 $-.539\sim.624$ 로 구조방정식 적용에 필요한 정상분포 조건(왜도 $<|2|$, 첨도 $<|7|$)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randt, Kelava, Klein, 2014).

〈표 2〉 변인 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N = 1,146)

구분	우울	사회적 위축	학교생활 적응
우울	1		
사회적 위축	.514**	1	
학교생활 적응	-.366**	-.297**	1
평균	1.77	2.35	3.83
표준편차	1.76	1.47	1.86
왜도	.433	-.177	-.347
첨도	-.328	-.539	.624

* $p < .01$

2.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사회적 위축, 학교생활 적응 관계

1) 연구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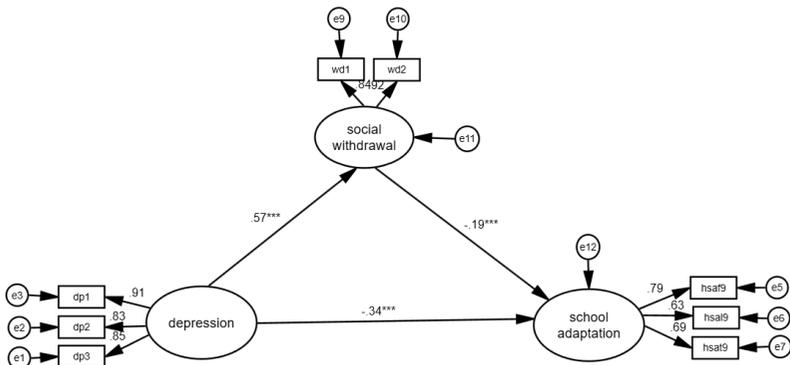
측정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청소년 우울 척도의 요인 구조를 재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측정 변인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학교생활 적응 척도는 3개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나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묶어 모형검증에 사용하였다. 우울척도와 사회적 위축은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항목 묶기(item parceling)를 통해 측정 지표를 구성했다. Item parceling은 내용분석과 EFA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한 3문항을 묶어 평균 값을 도출, 하나의 측정 변인으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측정 모형과 연구모형은 자유도가 같은 동치 모형이므로 측정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생략하였고 연구모형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66.723(df=17)$, TLI=

.947, CFI=.968, RMSEA=.079로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후 연구모형 경로의 유의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3, 그림 2>).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C.R.
우울 → 사회적 위축	.57	.68***	.04	16.81
사회적 위축 → 학교생활 적응	-.19	-.17***	.04	-4.50
우울 → 학교생활 적응	-.34	-.35***	.05	-7.80

*** $p < .001$



*** $p < .001$: 모형의 수치는 표준화 계수이며,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표시함.

[그림 2] 연구모형

2) 연구모형 분석 결과

연구모형에서 변수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 우울함이 다문화 청소년 사회적 위축에 이르는 경로에서 유의한 결과($B=.57, p < .001$)가 나타났고, 다문화 청소년 사회적 위축이 다문화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에 이르는 경로도 유의한 결과($B=-.19, p < .001$)가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 우울함이 다문화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에 이르는 경로($B=-.34,$

$p < .001$)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모형 경로의 유의도를 살펴본 결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청소년 우울함이 다문화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다문화 청소년 사회적 위축을 거쳐 다문화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3) 매개효과 검증

변인들의 직·간접 효과와 다문화 청소년 우울의 부분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5,000번 수행하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간접(매개) 효과를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 우울이 다문화 청소년 사회적 위축을 거쳐 간접적으로 다문화 청소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 우울과 다문화 청소년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다문화 청소년 사회적 위축의 부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우울을 거쳐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으로 가는 경로는 95% 신뢰[-.175, -.049]로 나타나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우울과 학교적응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구분		B	β	SE	LLCI	ULCI
Direct	우울 → 학교생활 적응	-.336	-.352	.053	-.457	-.250
Indirect	우울 → 사회적 위축 → 학교생활 적응	-.110	-.115	.032	-.175	-.049
Total	우울 → 학교생활 적응	-.446	-.467	.042	-.549	-.287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 학교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우울이 사회적 위축을 거쳐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구조적 경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울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이 사회적 위축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을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우울은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묶어 모형검증에 사용하였다. 우울척도와 사회적 위축은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항목 묶기(item parceling)를 통해 측정 지표를 구성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후 연구모형 경로와 유의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사회적 위축을 거쳐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울을 경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기보다는 비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신예지·전성은·강영신,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과 일반 청소년의 우울 경험과 관련 비교에서 다문화 청소년은 여학생일수록, 행복감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나 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더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지희·황숙연, 2018). 이처럼 우울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사회적 위축이 부분 매개 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이 사회적 위축을 거쳐 학교생활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신영(201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이 우울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와 천지은 외(2021)는 부모 지지와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감, 우울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사회적 위축이 다문화 청소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위축과 관련 연구는 대체로 최근 진행되어 사회적 위축, 우울이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매개효과를 밝힌 연구는 전무하다. 특히 사회적 위축은 우울과 상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는 정책 마련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이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위축과 우울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청소년기 발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모국 문화 또는 부모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다문화 수용성을 통해 심리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중문화를 소유한 자신을 수용하고 이러한 상황을 강점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특히 이중 체계적인 언어 교육은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위축을 돌파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스스로 고립하고 위축되는 경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 특히 상담사를 통해 현재 처한 상황이나 심리상태를 상담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내면의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문화정체성을 고려한 장기적 개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학교에서 문화 복지사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도 분리해서 차별화하는 위축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오영훈, 임한나(2014)는 청소년수련활동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수련 활동 기회 확충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하며,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어려움 중 우울을 연구함에 사회적 위축을 중심으로 학교생활 적응과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이 학교생활 적응과 사회적 위축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여 우울이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점은 연구의 의의를 더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횡단적인 관점에서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서 변인들의 변화 궤적들을 살펴보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을 분리하여 종단적인 자기 회귀 교차 지연모델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을 통해 관련 변인들과의 상호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주요내용」, 교육안전정보국 교육통계과, 2020.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국립특수교육원, 2009.
- 김광일 · 김재환 · 원호택, 「간이정신 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1984.
- 김동순 · 박봉선 · 이익빈 · 손가현,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 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 복지조사연구』, 제64권 1호, 2020, 91~125쪽.
- 김민경,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권 2호, 2016, 315~324쪽.
- 김선희 · 김경연,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권 4호, 1998, 155~166쪽.
- 김성결,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다문화 청소년 중 단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 김송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과 자아존중 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 환경』, 17권 3호, 2023, 115~124쪽.
- 김순규,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 『청소년학 연구』, 18권 3호, 2011, 247~272쪽.
- 김아영 · 김수인, 「여성 국제결혼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 심리적 특성 비교」, 『한국교육심리학회』, 25권 4호, 2011, 855~873쪽.
- 김주환 · 김민규 · 홍세희, 『구조방정식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9.
- 노충래 · 홍진주,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 사회적응 실태연구: 서울 경기도 지역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 아동 복지학』, 22호, 2006, 127~159쪽.

- 모상현,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교사 및 또래 친구 요인의 조절 효과」, 『청소년 문화 포럼』, 54권, 2018, 68~93쪽.
- 모선희 · 이인희,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지원방안 연구」, 충남 발전연구원, 2008.
- 민병수,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박윤경 · 이소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집단 간 차이와 집단 내 다양성」, 『시민교육 연구』, 41권 1호, 2009, 41~71쪽.
- 손신영,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 학교지역 보건 교육학회지』, 20권 3호, 2019, 101~111쪽.
- 신예지 · 전성은 · 강영신,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의 발달 궤적: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 다문화 교육학회』, 16권 3호, 2023, 33~56쪽.
- 신자현 · 심재환 · 전하민,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 다양성 연구』, 4권 1호, 2022, 63~90쪽.
- 안선정 · 이현철 · 김지영,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자녀 갈등, 또래 관계, 학교생활 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가정관리학회』, 31권 2호, 2013, 77~91쪽.
- 양계민 · 황진구 · 안보라 · 정윤미 · 김주영,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총괄 보고서」, 2018.
- 여성가족부, 「2021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한국 여성 정책연구원, 2022.
- 연은모 · 최효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잠재 프로파일의 종단적 변화 및 영향 요인」, 『산학협력학회』, 21권 3호, 2020, 164~172쪽.

- 오영훈 · 임한나,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다문화 평화연구소』, 8권 1호, 2014, 143~172쪽.
- 오승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6권, 2016, 1~27쪽.
- 유지희 · 황숙연,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대화시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 복지학회』, 20권 4호, 2018, 169~193쪽.
- 오낙윤 · 이소연,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아동연구』, 33권 1호, 2021, 64~83쪽.
- 은선경,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3권, 2010, 37~74쪽.
- 이경상 · 백혜정 · 이종원 · 김지영,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 이래혁 · 장혜림,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교우관계와 사회적 위축의 이중 매개효과」, 『청소년 문화포럼』, 62권, 2020, 121~144쪽.
- 이보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개인과 지역요인 연구: 다 수준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이봉주 · 민원홍 · 김정은,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달-맥락 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 연구』, 21권 8호, 2014, 317~346쪽.
- 이영주 · 박륜경 · 이수경,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 태도와 심리적 적응 및 학교적응」, 『교육문화연구』, 23권 5호, 2017, 347~372쪽.
- 장은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 적응에 대한 중단분석: 우울과 자아 탄력성을 중심으로」, 『학습자 중심 교과 교육 연구』, 21권 12호, 2021,

677~688쪽.

- 장지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정체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 장혜림 · 이래혁,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을 통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0권 1호, 2021, 1~29쪽.
- 정주미 · 이동영,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발달 궤적: 잠재계층 분류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의 영향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32권 1호, 2021, 57~85쪽.
- 조윤영 · 정현희, 「다문화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우울에 따른 잠재 계층 전이 양상 및 영향 요인」, 『청소년학 연구』, 28권 1호, 2021, 221~247쪽.
- 조성희 · 박소연,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지역사회 인식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 환경』, 18권 2호, 2020, 81~92쪽.
- 조은정,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모, 교사, 친구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5권 6호, 2008, 299~321쪽.
- 천지은 · 박지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 사회적 위축, 우울의 관련성」, 5권 2호, 『사회적질연구』, 2021, 1~29쪽.
- 한광현,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궤적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48권 1호,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020, 56~83쪽.
- 홍성초 · 조제성,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발달궤적의 차이검증」, 『한국치안행정논집』, 17권 4호, 2020, 253~267쪽.
- 홍세희, 『구조방정식모형의 기초이론과 적용』, S & M Research Group, 2012.
- 홍나미 · 박현정, 「부모 방임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미래사회복지연구』, 8권 2호, 2017, 125~151쪽.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Section III: emerging measures and models.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2013.
- Beck, C. T., "The effects of postpartum depression on maternal-infant interaction: a meta-analysis." *Nursing research*, 44(5), 1995, pp. 298-304.
- Bardone, A., Moffitt, T., Caspi, A., Dickson, N., & Silva, P., "Adult mental health and social outcomes of adolescent girls with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4), 1996, pp. 811-829.
- Gutman, L. M., Sameroff, A. J., "Continuities in depression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Contrasting ecological influenc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 2004, pp. 967-984.
- Hartmann, H., *Essays in Ego Psychology*. New York: Int. Univ. Press, 1964.
- Katz, S. J., Conway, C. C., Hammen, C. L., Brennan, P. A., and Niamn, J. M., "Childhood social withdrawal, interpersonal impairment, and young adult depression: A mediational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8), 2011, pp. 1227-1238.
- Özdemir, S. B., Stattin, H., "Why and when is ethnic harassment at risk for immigrant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Understanding the processes and condi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8), 2014, pp. 1252-1265.
- Romero, A. J., & Roberts, R. E., "Stress within a bicultural context for adolescents of Mexican descent."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9(2), 2003, p. 171.

Nebbitt, V. E., & Lombe, M., “Assessing the moderating effect of depressive symptoms on antisocial behavior among urban youth in public housing.” *Child &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5, 2008, p. 409.

Rubin, K. H., Burgess, K. B., Kennedy, A. E., & Stewart, S., “Social withdrawal.” *Child Psychopathology*,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2003, pp. 372-406.

접 수 일 : 2024년 02월 19일

심사완료 : 2024년 03월 19일

게재결정 : 2024년 03월 21일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Atroph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Howangbo, Kyeong Ok(D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atroph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chool life adaptation in multicultural youth.

To this end, using data from a total of 1,146 high school seniors in 2019 (the third year of high school) in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we examined the effects of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in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n school life adaptation using SPSS 27.0 and AMOS 24.0 program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depression perceived by multicultural youth directly affects school life adaptation, and social withdrawal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chool life adaptation.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depression directly affects multicultural youth's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depression indirectly affects school life through social withdrawa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suggested ways to reduce depression and social atrophy for multicultural youth to adapt to school life, various intervention strategies, and directions for follow-up research for psychological stabilization.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Depression, Social Atrophy, Mediating Effects